



1003일만에...

151km 강속구 회복

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다저 스타디움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MLB) 워싱턴 내셔널스와 홈경기에서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류현진이 선발 등판, 역투하고 있다. 류현진은 이날 7이닝 동안 102개의 공을 던지며 홈런 하나를 포함한 7안타를 내주고 4실점 했다. 7이닝과 투구 수 102개는 류현진의 올 시즌 최다 이닝과 투구 수다. 다저스가 2-4로 저 류현진은 시즌 6패(2승)째를 안았다. /연합뉴스

류현진 2017년 MLB 등판일지

날짜	구장	상대팀	투구 내용	경기결과
1패 4월 8일	쿠어스필드	콜로라도	4-3-6-2(2)-1-1-5-3.86	1-2
2패 14일	리글리필드	시카고 컵스	4-3-6-4(4)-2-2-5-5.79	0-4
3패 19일	다저스타디움	콜로라도	6-7-4(4)-3-1-7-5.87	3-4
4패 25일	AT&T파크	샌프란시스코	6-5-1(1)-0-1-3-4.64	1-2
1승 5월 1일	다저스타디움	필라델피아	5-3-3-1(1)-0-3-9-4.05	5-3
5패 12일	쿠어스필드	콜로라도	4-8-10(5)-0-6-4-4.99	7-10
2승 19일	다저스타디움	마이애미	5-3-7-2(2)-2-1-3-4.75	7-2
1세이브 26일	다저스타디움	세인트루이스	4-2-0-0-1-2-4.28	7-3
1승 6월 1일	부시스타디움	세인트루이스	6-3-1(1)-0-1-4-77-3.91	1-2
6패 6일	다저스타디움	워싱턴	7-7-4(4)-1-0-4-102-4.08	2-4

워싱턴전 선발 LA 류현진, 수술 후 최고 구속

7이닝 소화하며 홈런 등 4실점...구속 회복 위한

류현진(로스앤젤레스 다저스)에게 6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다저 스타디움에서 열린 워싱턴 내셔널스와 홈경기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토록 원했던 '시속 150km 강속구'를 수술 이후 처음 되찾은 날이기 때문이다. 류현진은 1회 초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워싱턴 중심 타자 브라이스 하퍼를 상대로 93.8마일(시속 151km) 강속구를 던져 삼진을 뽑았다. 2015년 어깨 수술을 받은 류현진이 매

이저리코 마운드에서 시속 150km를 넘긴 건 2014년 10월 7일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 내셔널리그 디비전시리즈 3차전 이후 973일 만이다. 당시 류현진은 93.7마일(시속 150.8km)의 최고구속을 찍었다. 오히려 이날 워싱턴전 구속이 더 빠르다. 정규시즌을 기준으로 하면 2014년 9월 7일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전(94.6마일·시속 152.2km) 이후 1003일 만이다. 어깨 수술을 받은 선수의 가장 큰 고민은 구속 저하다. 여러 신경과 근육, 힘줄이 영겨 있는 어깨는 아직 의학으로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분야로 수술 뒤 원래 구속을 되찾는 선수는 전체 10% 정도밖에 안 된다는 통계도 있다. 류현진의 강속구는 하퍼를 상대로 딱 한 번만 나온 게 아니었다. 2회에는 대니얼 머피를 상대로 93.6마일(시속 150.6km)을 다시 한 번 찍었다. 이후 류현진은 완급을 조절해가며 투구해 속구 구속은 90마일 초반대로 내려갔다. 구속 회복으로 희망을 준 류현진이지만, 또 홈런을 내준 건 아쉬움으로 남는다. 최근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를 상대로 한 2경기에서 평균자책점 0.90(10이닝 1실점)으로 활약한 류현진은 리그 최강 워싱턴을 만나 7이닝 7피안타(피홈런) 4탈삼진 4실점으로 비교적 선전했다. 류현진이 7이닝을 채운 건 수술 이후 처음이다.

다만 장타가 문제였다. 2014년 152이닝 동안 홈런 8개만을 내줘 리그 최정상급 장타 억제 능력을 보여줬던 류현진은 올해 53이닝 투구에 9개 홈런을 내줬다. 류현진은 2회 초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앤서니 랜던에게 체인지업을 던졌다가 솔로포를 맞았다. 4회 초 추가실점도 아쉬움이 남는다. 류현진은 2사 1루까지 잘 잡아 놓고 다시 랜던에게 2루타를 내줬다. 장타 한 방에 상황은 2사 2, 3루로 바뀌었고, 맷 위터스에게 안타를 맞고 2점을 더 내줬다. 류현진의 재활은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다. 올해 전반기는 수술 뒤 예전 기량을 되찾는 마지막 단계라고 봐도 된다. '장타 억제'라는 속제는 받았지만, 시속 150km 강속구와 7이닝은 그간 홈런 뱀방울에 대한 보상이었다. /연합뉴스



비를 부르는 선발 임기영...KIA 꿀맛 휴식

두 차례 우천취소 모두 선발 "경기하고 싶어 비 오지 말라 빌었는데..."



'호랑이 군단'이 꿀 같은 휴식을 얻었다. 6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KIA 타이거즈와 한화 이글스의 시즌 7차전이 비로 취소됐다. 설 없이 달려온 KIA 에겐 반가운 비다. 이번이 올 시즌 KIA의 두 번째 우천 취소. 그나마도 두 달 만에 찾아온 휴식이다. KIA는 지난 4월 5일 SK 와이번스와의 경기가 비로 취소된 뒤 설이 달리면서 kt와 함께 가장 많은 56경기를 소화했다. 단.

몇 차례 경기 전 비가 지나갔지만 경기는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지난 5월 13일 SK 원정 때는 돌풍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리기도 했지만 경기를 앞두고 비가 그치면서 경기 시작 시간을 30분 미뤄 플레이 불이 선언되기도 했다. 이날은 오전부터 광주에 비가 계속된 데다 밤늦게까지 비 예보가 있던 터라 우천 취소가 결정됐다. 우천취소로 인해 마운드 대결 양상이 달라졌다. KIA가 예고했던 대로 임기영을 선발로 투입하기로 했지만 한화가 오간도에서 윤규진으로 선발을 교체했다. 이에 따라 7일 경기는 임기영과 윤규진의 맞대결로 전개된다. 선수들이 일찍 경기장을 떠난 가운데 등판이 하루 미뤄진 임기영은 빗속의 캐치볼

로 컨디션을 조절했다. 임기영은 "내가 비를 몰고 다니는 편이다"며 웃었다. 올 시즌 KIA의 우천취소 두 경기의 선발은 모두 임기영이었다. 앞선 취소 경기는 임기영의 오늘을 있게 한 전환점이었다. 4·5선발 대란 속에 임기영은 '임시 선발'로 4월 5일 등판을 준비했다. 하지만 이날 내내 비가 내리면서 우천취소가 결정됐고, 임기영의 선발 데뷔전은 무산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임기영의 기다림을 외면하지 않은 김기태 감독은 그대로 다음 날 경기 선발로 임기영을 예고했다. SK가 김동한에서 켈리로 선발을 바꾸면서 4월 6일 임기영은 SK 에이스 켈리를 상대로 선발 데뷔전을 치렀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예상과 달리 이날 임기영은 6이닝 1실점의 호투로 팀의 6-4 승리를 이끌었다. 볼펜 난조로 선발 데뷔전 승리투수가 되지는 못했지만 임기영과 KIA의 2017시즌을 바꾼 중요한 경기였다. 이후 임기영은 꾸준히 선발 로테이션을 지키면서 2.07의 평균자책점으로 6승 2패를 기록하고 있다. KIA는 임기영으로 안정된 4선발까지 구축하면서 1위 독주를 이어오고 있다. 임기영은 6일 훈련을 끝낸 뒤 "지난 우천 취소 때 너무 던지고 싶어서 비가 오지 말라고 계속 빌었다. 그 때와 상황은 달라졌지만 오늘도 마음은 같다. 경기하고 싶어서 비가 오지 말라고 빌었다"며 "경기 준비 잘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어? 쭈타누간이 세계1위 아니네

LPGA "랭킹 산정 착오"...리디아 고 1위 유지

리디아 고(뉴질랜드)가 여자골프 세계 1위 자리를 유지했다. 리디아 고는 5일 발표된 여자골프 세계 랭킹에서 랭킹 포인트 8.37점을 얻어 8.36점의 에리아 쭈타누간(태국)을 0.01점 차로 앞서 1위를 지켰다. 2015년 10월부터 세계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는 리디아 고는 이로써 85주 연속 여자골프 세계 1위를 이어갔다. 원래는 쭈타누간이 이번 주 세계 랭킹부터 1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는 5일 끝난 숄라이트 클래식 대회에 앞서 "이번 대회 결과로 쭈타누간 또는 유소연이 1위가 되고 리디아 고는 무조건 1위 자리에서 내려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리디아 고, 쭈타누간은 숄라이트 클래식

식에 불참하고 유소연은 출전한 가운데 유소연이 3위 이내 성적을 내면 5일 자 세계 순위에서 유소연이 1등이 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쭈타누간이 1위가 된다 고 설명한 것이다. 숄라이트 클래식에서 유소연이 컷 탈락했기 때문에 외국 주요 매체들은 일제히 '쭈타누간이 새로운 세계 1위가 됐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LPGA 투어는 6일 "2015년 매뉴얼이 클래식 결과를 세계 랭킹 산정 결과에서 제외해야 했는데 그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리디아 고가 간발의 차로 세계 1위를 유지했으며 2위 쭈타누간, 유소연은 8.11점으로 3위에서 변함없이 됐다. 10위 내 한국 선수로는 유소연 외에 5위 전인지, 7위 박인비, 8위 박성현, 9위 김세영 등 총 5명이 자리했다. /연합뉴스

▲깜짝 놀랐다= 김기태 감독을 놀라게 한 승리, 선수들이었다. KIA는 지난 5일 삼성과의 원정경기에서 13-3으로 이기며 3연패를 끊고 광주로 돌아왔다. 이날 임시 선발 정용운을 내세운 KIA는 예상과 달리 삼성 운성환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며 귀한 승을 더했다. 김 감독은 6일 취재진과의 자리에서 "우리 팀에게는 큰 1승이다. 나중에 생각해보면 중요한 승리가 되지 않을까 한다. 우리 선수들에게 깜짝 놀랐다. 야수, 투수들 모두 큰 위기였는데 잘 해냈다"고 언급했다. ▲나 때문에 오기 싫을 거야= 6일 비가 내리면서 KIA는 실내 연습장에서 훈련을 진행했다. 선수들의 타격 훈련이 진행되고 있던 실내 연습장에 "복근 운동 안 하나"

김기태 감독 "삼성전 승리는 큰 1승" 최원준 "초딩팬 편지 잘 간직해야지"

덕아웃 T 특특

라는 조계현 수석코치의 호통(?)이 떨어졌다. 조 수석의 이야기에 이내 자리를 잡고 운동용 시작한 이들은 KIA 선수들이 아닌 불모이로 나온 진흥중 학생들이었다. 비가 내리면서 가만히 자리를 지키고 있던 어린 선수들을 붙잡고 훈련에 나선 조 수석은 "나 때문에 애들이 야구장 오기 싫을

거야"라고 웃었다. 김기태 감독도 "경기장에 오면 뭐라도 하나씩 배워가야 한다. 내일부터는 언더셔츠도 하나씩 더 가져와서 운동하라"며 조 수석을 거들었다. ▲잘 간직해야지= 최원준이 동명인인 어린이팬에게서 특별한 선물을 받았다. 6일 챔피언스필드에 편지가 배달됐다. 받는 사람 최원준, 보내는 사람 역시 최원준이었다. 초등학교 3학년의 응원편지. 편지에는 이름을 바꾸지 말아 달라는 부탁도 있

었다. 최원준은 "우편으로 온 편지는 처음 받았다"며 "잘 간직해야겠다"고 웃으며 편지를 챙겼다. ▲우리 3·4번 타자인데= 6일 광주·전남 지역에 내린 비로 이날 함평과 광주에서 예정됐던 KIA의 1·2군 경기가 모두 취소됐다. 검사검사 챔피언스필드 덕아웃을 찾은 정회열 2군 감독, 사람들의 관심사는 역시 부상으로 엔트리에서 빠져있는 김주찬과 이범호였다. 두 사람의 근황을 묻는 말에 정 감독은 "우리 3·4번 타자들이다. 오늘 경기에 나오려고 했는데 비가 와서 못 뛰었다"고 말했다. 각각 허벅지와 손목 부상으로 빠졌던 김주찬과 이범호는 이날 말소 후 처음 2군 경기 출전을 준비하는 등 복귀를 앞두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

'교생 실습 끝' 김효주 LPGA 복귀

9일 매뉴얼 클래식 출전

교생 실습을 하느라 두 달 동안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투어 무대를 비운 김효주가 다시 LPGA투어에 모습을 드러낸다. 김효주는 9일(한국시간)부터 나흘 동안 캐나다 온타리오의 휘슬버어 골프장(파72)에서 열리는 매뉴얼 클래식 대회에 출전한다. 교생 실습을 받는 동안 5개 대회를 결장한 김효주는 상급랭킹이 46위(12만3590달러)로 밀렸다. 상급랭킹 50점 가운데 7차례 대회밖

에 뛰지 않은 김효주보다 출전 대회가 적은 선수는 어깨 부상으로 시즌 초반에 결장이 많아 6개 대회만 치른 김인경뿐이다. 대부분 선수는 많게는 10~12개 대회를 치렀다. 7개 대회에서 톱10이 두 번인 김효주는 교생 실습이라는 숙제를 마치고 출가 분한 마음으로 본격적인 상급 사냥에 나선다. 작년 1월 바하마 클래식 제패 이후 1년이 넘도록 우승이 없는 김효주는 긴 침묵 탈출을 노린다. /연합뉴스